‘鄭 사장 해임’ 결국 법정으로 가나

정 사장 “해임 요구 무효소송 나설 것”
‘부실 경영·인사 전횡’ 감사 결과 반박

정연주 KBS 사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해임 요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으로써 정 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된다.

정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음해와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이와 관련, “(정 사장의) 변호인단이 7일 감사원의 해임요구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확인소송과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미리 준비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KBS 사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감사원 해임요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8월5일은 감사원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감사는 ‘정치적인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보고서 내용은 거짓과 왜곡, 자의적인 자료 선택과 해석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장 KBS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의결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정 사장이 법적 대응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상되는 법정 다툼=향후 정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1차적인 결정은 8일 열릴 KBS 임시이사회에서 내려진다. KBS 임시이사회는 이날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감사원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이사회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단이 이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KBS 이사회 구성상 해임권고 결의가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후 KBS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 정 사장은 “이 문제는 어차피 언젠가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 “감사원 감사 부당”=정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KBS를 향해 압박을 가해왔고 그 압박의 칼날은 저의 거취 문제로 모아져 있었다”고 비판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사례별로 반박하며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2005년 KBS와 국세청의 세무 조정 결과와 관련, “감사원은 소송 조기종결이 없었다면 환급액 555억 원은 발생하지 않고 추납액 366억 원만 발생해 당기순손실이 345억 원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짓”이라며 “2005년 결산 손익에는 법인세 추납액이 이미 그해 3월에 비용으로 계상돼 있어 환급액을 빼고 나더라도 그해 당기순이익은 21억 원 흑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1천172억 원 누적사업 손실’이라는 지적도 허위와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2003년 KBS의 당기순이익은 189억 원”이라면서 “당기순손익을 외면하고 굳이 사업 손익으로만 평가하려 드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사업손익만으로 계산하더라도 큰 규모의 흑자가 발생했던 취임 첫 해인 2003년의 사업이익 434억 원은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만을 계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인사전횡’의 사례로 거론한 ‘특별승격’ 문제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인재를 발탁하는 것도 인사 전횡이고 해임사유인가”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정연주 KBS 사장이 6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힐러리 ‘오바마 대통령 만들기’ 본격화

8일부터 선거운동

오바마 지지 셔츠를 들어 올리고 있는 힐러리. /연합뉴스

지난 6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게 패배했음을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오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다.

오바마 선거진영은 5일 힐러리가 8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바마 지지 집회를 열고 유권자들에게 투표 등록을 독려하는 행사를 가진 데 이어 21일엔 이번 대선의 격전지인 플로리다주에서도 오바마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힐러리는 지난 6월 힐러리가 경선패배를 선언한 뒤에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유너티(Unity)에 오바마와 함께 참석, 유세를 벌이며 민주당의 단합을 호소했었다.

또 두 사람은 상대방의 선거자금모금 행사에 참석, 모금을 도와왔으나 힐러리가 단독으로 오바마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힐러리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도 오바마 지지 연설을 할 예정이다.

힐러리는 한때 오바마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가 되면 ‘드림카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최근엔 부통령 후보군에서 점차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누르고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오도록 힐러리와 오바마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경선과정에 쌓인 상대 진영에 대한 감정적 앙금을 털어내도록 설득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힐러리의 오바마 선거운동 발표는 전날 힐러리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처신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이후 이뤄져 눈길을 끈다.

빌 클린턴은 전날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경선과정에 대해 후회스런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며 오바마를 개인적으로 공격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北 김영남 동석 무산

베이징 올림픽 환영 오찬 좌석배치 돌연 변경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스포츠 외교를 통해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하는 세계 각국 정상 부부들을 위한 환영 오찬장의 좌석 배치가 갑자기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인민대회당 2층 연회청에서 열리는 오찬장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자연스럽게 남북한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당초 9각형 테이블 9개를 배치하고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주재하는 테이블에 이 대통령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가 앉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그러나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찬장에 입장하기 전 리셉션룸에서 10분 정도 함께 있게 되며 오찬장 입장시에도 같이 들어올 수 있어 회동 기회는 많다”고 말했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또 8일 올림픽 개막식 남북한 선수단 입장순서를 순차적으로 하려는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칙에 따라 국명의 중국어 간체자 획수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에 이어 178번째로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과 피지, 보츠와나, 포르투갈 4개국이 입장한 뒤 입장하는 것으로 결정돼 남북한 입장 순서에 4개국 선수단이 끼어들게 됐다. /연합뉴스

中 신장지구 강풍·황사 기차 승객 4천명 고립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5일 허리케인급의 강풍을 동반한 황사가 불어 닥쳐 4천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중이던 4개 노선 기차가 중간 역에 갇혔다고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승객 1천800명을 태우고 아크수에서 우루무치로 가던 5808호 열차는 5일 오후 4시부터 강풍과 황사때문에 투루판 부근의 위얼거우역에 정차한 채 10시간 이상 운행을 정지했다.

허리케인에 맞먹는 14급 강풍으로 4일 섭씨 40도를 웃돌던 기온은 23도로 떨어졌고 열차는 탈선 우려때문에 운행을 중단했다.

승객들은 식수는 공급받고 있으나 채소를 비롯한 먹거리가 부족해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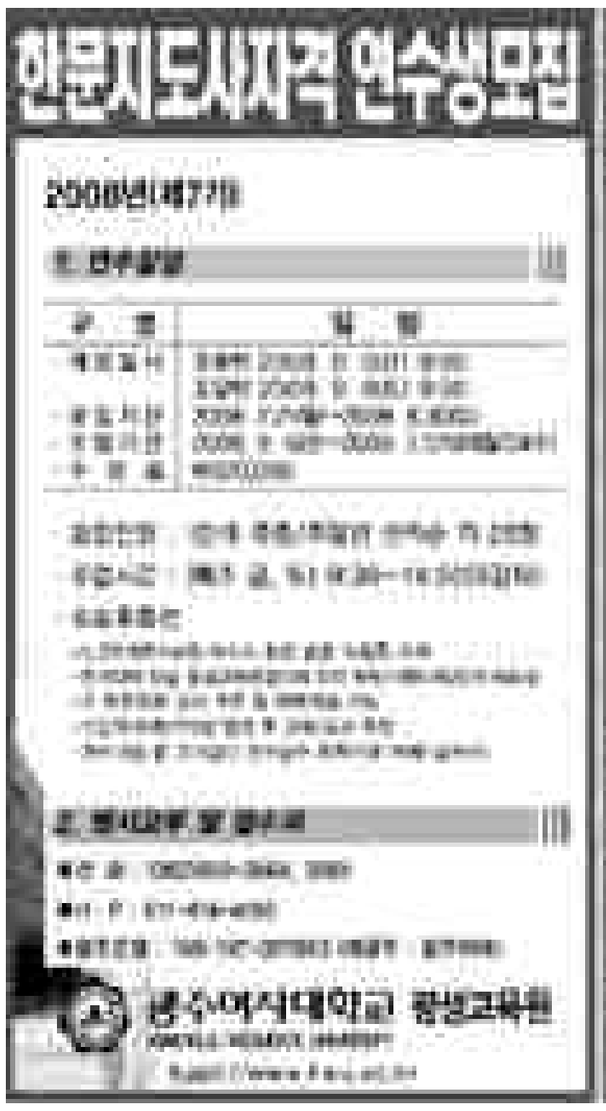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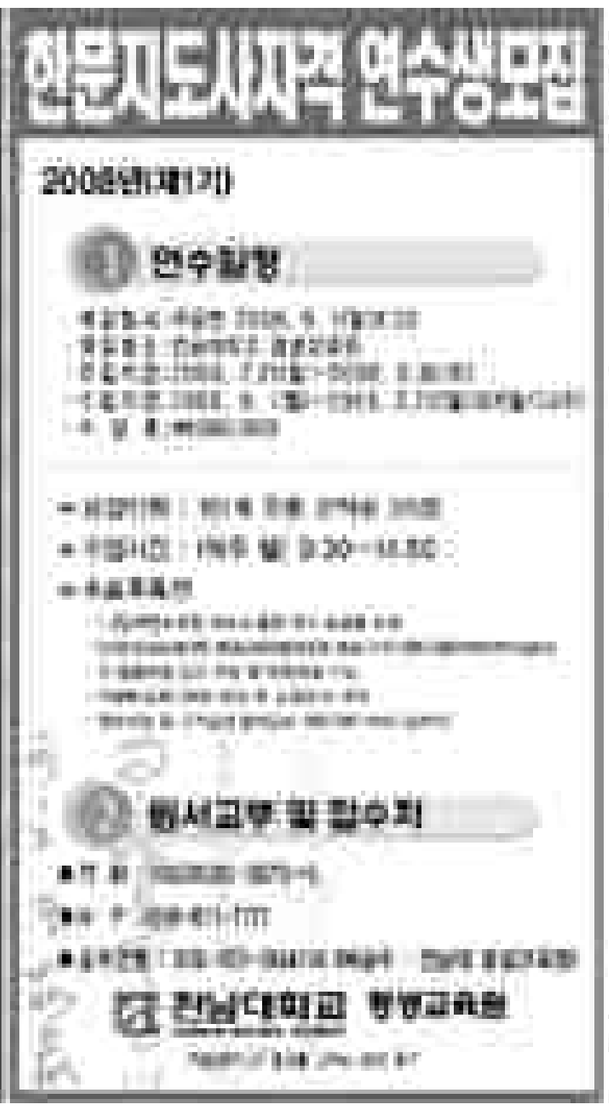
이밖에 간쑤성 성도 란저우에서 카스로 가던 2661호 열차등 3개 노선 열차가 위얼거우 역에 갇혔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선 강풍이 불면 탈선 우려때문에 기차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작년 2월28일 5808호 열차가 강풍 속에 운행하다 탈선,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옥희씨 공천전 3억 인출 사용 정치권 로비 수사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옥희 씨의 ‘30억 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김 씨 계좌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이전 3억여원이 인출된 사실을 밝혀내 계좌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김 씨가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3천만원을 모두 본인 계좌에 입금했고, 공천 전 이 계좌에서 3억여원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출된 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김 씨의 오피스텔 구입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거나 김 씨의 아들 계좌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즉 김 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3천만원 중 25억원은 김 이사장에게 되돌아갔고 나머지 5억여원 가운데 공천 이전 3억여원이, 공천 후 1억여원이 각각 인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5억여원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곳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 씨의 아들 계좌에 들어간 돈이 정치권 등에 대한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연결 계좌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